

북스

어린이 책꽂이



▲버터와 밥틀=열한 살 소녀 하늘이가 쓴 스토리 친구 이야기. 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하늘이가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친다는 조건으로 햄스터를 선물 받고 그때의 경험과 관찰을 기록해 두었다가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동화다. 버터와 밥틀은 햄스터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과 매우 닮았다. <웅진주니어·8500원>



▲일기장 통신=장성 출신으로 '엄마는 과업중'을 쓴 김희숙씨의 신작동화. 다미는 요즘 특이한 화가 되고 짜증도 늘었다. 엄마는 그런 다미에게 잔소리만 쏟아내고 두 사람의 싸움을 커져만 간다. 다미는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풀어보게 되고, 가족 간 소통을 위해 '가족일기장'이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다. <뜨인돌어린이·9500원>



▲아용, 고양이 놀이='눈 오는 날'로 칼데콧 상을 수상한 에즈라 잭 키츠의 그림 동화. 하루 동안 사이좋게 '고양이를 놀이' 하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가 이야기다. 함께 노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의 모습 속에, 겉모습은 서로 다르더라도 쉽게 친구가 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담겨 있다. <시공주니어·7500원>



▲전태일-불꽃이 된 노동자=여성노동자들이 비인간적 노동환경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자신의 몸을 불태워 항거했던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이야기. 특히 노동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파업, 분신 등 어린이 책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듯 서간 형식의 글로 부드럽게 풀어냈다. <한겨레아이들·1만원>



▲불씨 지킨 새색시=화가 홍영우씨가 환경북도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아가자기한 그림으로 그려냈다. 옛날, 한집안의 아들이 혼인을 해서 참한 새색시가 들어온다. 그런데 불씨 항아리에 고이 담아둔 불씨가 살립 시작한 찻날밤에 꺼져 버리고 만다. 대체 누가 불씨를 꺼뜨리는지 지켜보기로 하는데... <보리·1만1000원>



▲아빠 뽀뽀=따따따따, 보들보들, 복속복속, 폭신폭신..... 뽀뽀라는 스킨십을 통해 다양한 느낌과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꾸렸다. 꽃잎처럼 향긋한 뽀뽀, 나비처럼 팔랑이는 뽀뽀, 눈꽃보다 차가운 뽀뽀 등 여러 감각에 대한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배울 수 있다. <여우고개·1만원>



▲교과서 속 인문체험=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인물 중 비중 있는 인물을 다뤄 그림 인물이 실제로 자라고 활동했던 곳을 찾아가 살펴보는 답사 여행 이야기다. 역사적 인문체의 활동 내용을 이야기로 들어보고,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 등 체험 학습 정보를 제시했다. <게임북스·1만4500원>

▲HOW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진화의 비밀='어떻게'라는 단어를 엮기말로 인류의 진화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리 조상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도구와 예술작품을 만들고, 불을 다루었을까? 어떻게 눈과 발에 정착해 먹을 것을 기르게 됐을까?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진화과정을 들려준다. <블루나무·1만1000원>

희망·풍경이 있는 민통선 숲과 사람 이야기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지음



“나는 눈이 아프도록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풍경의 안쪽에서 말들이 돌아나기를 바랐는데, 풍경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풍경은 태어나지 않은 말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적막강산이었다.”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올해 초여름까지 남한 곳곳을 돌아다녔던 소설가 김훈이 내 장편소설 '내 젊은 날의 숲'의 '작가의 말' 중 일부분이다. 이 소설은 휴전선 이남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들었던 세상의 자연, 사람의 풍경을 재구성한 글이다. 소설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는 풍경을 하얗없이 바라만 봤던 작가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

다. 그는 소설을 통해 “희망이라는 것이 고통과 더불어 있는 것”이라고 전한다. 이야기는 비무장지대 내 수목원에서 식물의 세밀화를 그리는 계약 화가인 주인공의 남루한 삶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는 투쟁이 아니라 심부름꾼 노릇을 했기에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뇌물죄로 구속된 부패한 하급공무원의 딸인 그녀는 원치 않는 슬픔 안고 살아간다. 소설은 그녀가 수목원에서 나무, 꽃, 풀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며 보낸 2월부터 12월까지의 생활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녀가 생명에 아름다움을 세밀화로 담고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조금씩 죽어 간다. 군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하위직 공무원의 그 작은 직권으로 성병에 걸린 접객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하거나 검진증을 팔아먹고... 벌어진 돈이 나의 생애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

인지”를 깨닫고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또 험기를 육 개월 남겨 놓고,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돼 가석방 형식으로 출소한다.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고 거주장소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별도의 아파트에 '격리'시킨 채 간병인을 불러 준다. 그녀는 생의 치욕을 견디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와 그에 대한 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긴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문병을 간 외동딸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는 ‘괜찮다’와 ‘미안하다’ 두 마디다. 그녀는 “그 두 마디만으로도 한 생애를 요약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고 느낀다. 여타의 김훈 소설과는 달리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서술자의 등장으로 작가의 목소리가 좀더 또렷하고 직접적으로 들린다. 제목은 허락규(시인과촌장)의 노래 '숲'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으며, 문장 곳곳에 작가의 치밀한 관찰이 스며있어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문학동네·12000원> /오랑목기자 kroh@kwangju.co.kr



소설가 김훈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 장편소설 '내 젊은 날의 숲'을 냈다. /연합뉴스

김연아·아사다 마오의 운세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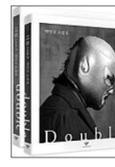
易학도 易하지 말라 최인태 지음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되고 어떤 사람은 일마다 안 되고 말하는 걸까?” 운명학 분야에서 나를 유명세를 얻고 있는 동양철학자 최인태(44·광주천문역원 대표)씨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과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엮은 '易학도 易하지 말라'는 동양학을 근간으로 근본 기원을 파악하고 그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오리엔탈 시크릿'을 비롯해 '성공의 키워드 달란트', '신난다 오늘의 달란트' 등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운명이 만들어지는 이치, 희망의 논리, 운명학의 올바른 이해 등이 담겨있고 제2장에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사주, 운과 재물, 관상과 건강, 성품과 직업에 관한 철학이 담겨 있다. 제3장에는 음과 양의 조화, 천직과 공할, 삶의 업보에 대한 단상이 실렸고, 제4장에는 다섯 가지 에너지, 인생의 태풍, 역경의 팔괘, 일기예보와 사주, 건강과 역학 등이 수록됐다. 이외에도 제5장에는 오행으로 본 목소리, 작은 우주, 다산 정약용의 깨달음, 아인슈타인과 역경 등을 담았고, 부록으로 16 신성도 동작과 그 의미들, 금일법을 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최진실 등 유명인사에 대한 사주풀이도 재밌다. <다지리·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죽음을 준비하는 40대 암환자

더블 박민규 지음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작가 박민규(42)씨가 소설집 '더블(전 2권)'을 출간했다. '카스테라'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단편집이다. 그동안 발표한 단편 24편 중 18편을 묶은 이번 소설집은 시간이 걸린 만큼 많은 공을 들인 '아침식'이라 할만하다. 삶에 대한 사색이 목격할 올림을 전하는 '근처'는 고향으로 돌아가 옛친구들을 만나며 죽음을 준비하는 40대 독신인 암환자의 이야기다. '낮잠'은 요양원을 배경으로 환궁기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과 회한을 잔잔하게 담았다. 그러다 하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광고용 비행선을 뒤쫓는 이벤트회사 직원을 그린 '굿바이, 제플린'에는 유머와 비애가 있고, 알래스카에서 차를 몰다 무자비한 살인마를 만난 뉴욕의 금융회사 부사장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루디' 등에서는 하드보일드한 잔혹극을 경험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원전 1만7000년 환경남도 이원 철산지역을 배경으로 한 '술',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값'과 시공간을 알 수 없는 어떤 우주 세계의 이야기 '크로만, 운' 등은 독특한 SF풍이다. 소설집을 두 권으로 엮은 점이나 화집 형식의 면 구성, 자신을 담은 표지 등은 지극히 '박민규'스럽다. <창비·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이보다 젊게 사는 10가지 비밀

젊음의 습관... 이승남 지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국민건강 주치의로 이름난 이승남(강남메트클리닉 원장)씨가 자신이 고안한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의 체험보고서 '젊음의 습관'을 펴냈다. 책은 100일간 100명의 사람이 직접 체험한 안티에이징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제1파트 체험보고, 2파트 젊게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 3파트는 연령별 세부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활동과 휴식,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 스트레칭과 여유 사이의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거나 나쁜 생활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중화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먹거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은 또 하루 1.8리터 이상 물을 마셔라, 슈퍼푸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어라, 비타민 건강보충제가 아니라 필수영양제다, 운동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라, 평소 먹는 양의 4분의 3을 30번씩 꼭꼭 씹어 먹어라 등 연령대별 공통 행동 지침 10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것만큼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게 아이러니. 건강의 비밀은 습관의 변화와 실천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행복한 책장·1만5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GG경매 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 위차: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
- 아파트: 광안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 주택: 광안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 임몰/빌라/다세대/오피스텔: 광안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 근린시설/근린상가/주유소: 광안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 토지(전,답,임야,대지): 광안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남구, 북구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급 매매: 서구 마죽동, 생산농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 광산구 토지 매매: 광안구 양동, 계획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 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건축물637.46㎡(192.83평), 현재 쉼 매장, 적합한 용도: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안구 우산동, 대지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보증금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12억원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건물(임대용,투자용):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월지 12억
- 토지 164평 건물 538평 (매가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예산)
-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용,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 834㎡(250평) - 매가 평당 1,300만원(클러스터스쿨과 매가부스중간(가라카도)
- 3,224㎡(975평) - 평당950만원
- 1,661㎡(500평) - 평당900만원
- 건물(임대용,투자용)
- 73,000㎡(2만2천평)정, 답 평당 1만원(동성동경기투자) 좋은 곳임
- 36평 매가 평당 85만원
- 77㎡(2300평)정, 평당 1,352 평당매가 평당 300만원(예산, 병원학원)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임야 단지 1층)

금산공인중개사
-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4만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망가능
- 장점: 1. 추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 시청 접근성과 광산-5·18 광로변), 5.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변화무쌍
-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 681-5686 H. 011-601-5354 (서평주역 건너 순천로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동부 신촌동, 대인동 소재지내편)